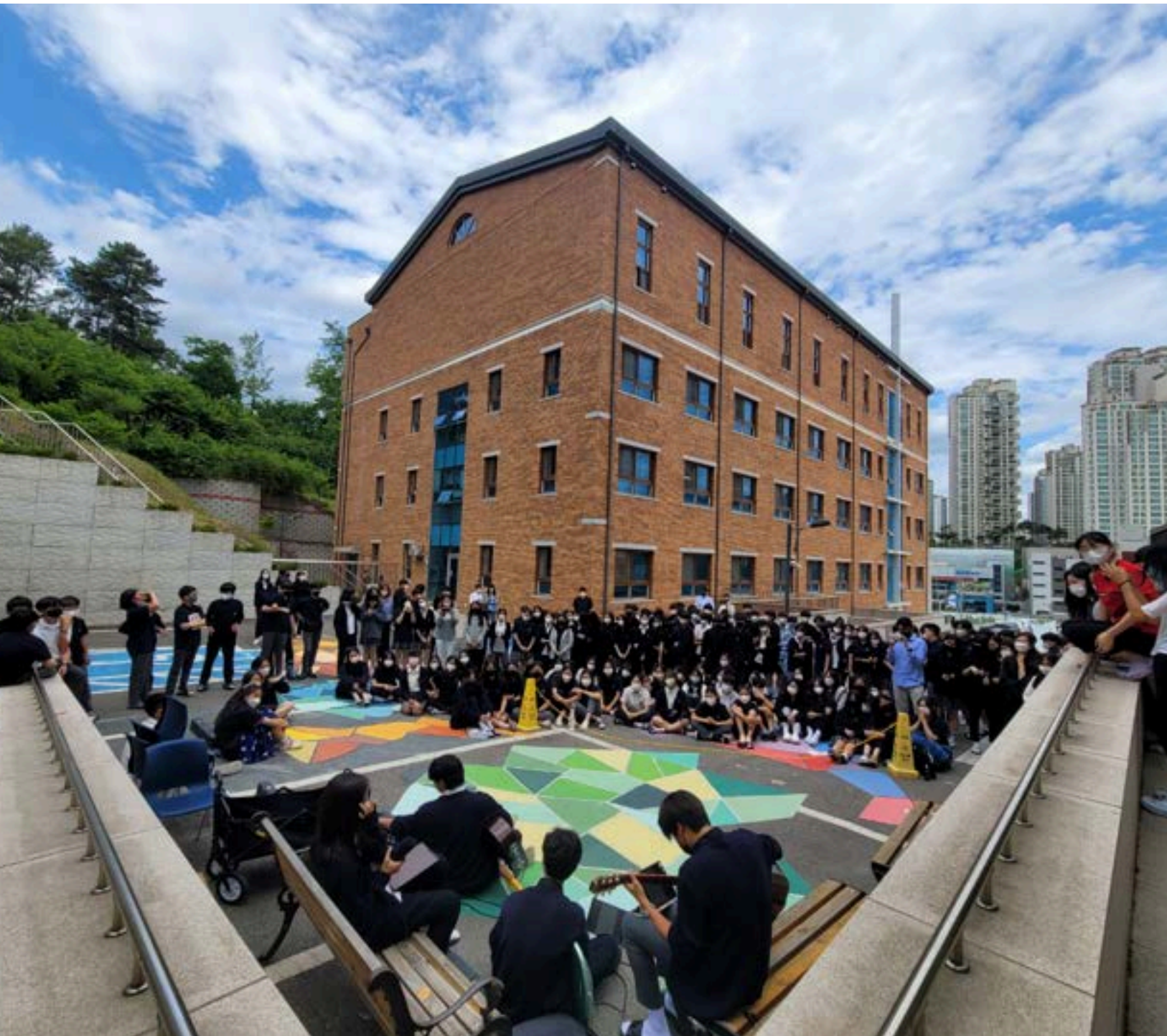


Saemmul Christian Academy

SMCA 2022 봄여름 소식지
샘물이야기



목차

샘물배움공동체 사람들의 이야기 (3)

[인터뷰] 한국대안교육학회 주최, 소논문발표대회 수상팀을 만나 (4)

- 아슬아슬 예선 통과해 본선 1등한 10학년팀 (5)
- 3천개 뉴스 댓글 분석해 혐오 표현의 변화를 살펴본 9학년팀 (10)
- 지구 온난화 환경문제로 논문 쓴 8학년 (14)

[인터뷰] 제16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배드민턴 복식 금메달 은혜샘물초등학교 6학년 김동하 학생 (16)

[인터뷰] 샘물 학부모 학습지원교사를 만나 (20)

샘물배움공동체 교실 속 이야기 (31)

유치원 갤러리 (32)

6학년 독서록 (33)

8학년 성경: 성경신문 (34)

방학예배 감사나눔 (36)

지역신문 광고 (38)

8학년 미술 (39)

수상 소식 (40)

샘물배움공동체 사람들의 이야기



[인터뷰] 한국대안교육학회 주최, 소논문 발표대회 수상팀을 만나

2022년 1월 12일, 한국대안교육학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한동대학교, CTS기독교TV 등이 함께 했던 소논문발표대회가 CTS기독교TV 사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7개의 팀 중에서 샘물중고등학교 10학년 학생팀(최지수 함서연 윤가원 김시온)이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저하되는 의사소통요소 탐구”로 한동대 총장상(1등)을, 9학년 학생팀(김예준 고윤우 이예린)이 “뉴스댓글 분석을 통한 혐오표현 변화의 실증적 연구”로 CTS기독교TV 회장상을 받았습니다.

작년 10월 논문 작성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중 예선과 본선 발표회로 진행됐던 이번 소논문발표대회에 샘물중고등학교는 개인 및 팀으로 9편의 논문을 제출했었지요. 그 중 3팀의 학생들을 만나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아슬아슬 예선 통과해 본선 1등한

반전의 10학년(현재 11학년) 최지수, 김시온, 함서인, 윤가원

참가자: 최지수, 김시온, 함서인, 윤가원(10학년)

논문: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저하되는 의사소통요소 탐구 (논문 보러가기)

지도교사: 주세진 선생님

수상: 소논문발표대회 한동대 총장상

소논문대회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주제도 흥미로워요.

지수 : 10학년에 과학탐구실험수업 과목이 있어요. 실험설계도 하고 실험도 하고 작은 논문을 작성하는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소논문대회 공지를 보고 이 대회도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서인 : 선생님들이 주신 수업의 큰 주제가 코로나였어요.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 나누다가 마스크 때문에 서로 말소리가 잘 안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로 인해 우리의 의사소통에 영향이 있을까, 있다면 무엇일까를 탐구하게 되었어요.

실험 내용을 소개해주세요.

지수 : 마스크가 우리의 의사소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1) 비언어적(표정), 2) 반반언어적(발음), 3) 언어적(음성강도) 세 가지로 나누어 실험을 했어요. 표정 실험은 기쁨, 슬픔 등의 표정을 담고 있는 사진을 골라 하나는 마스크를 씌운 사진, 다른 하나는 씌우지 않은 사진으로 만들어 피실험자들에게 표정을 묻는 실험을 했고요. 발음 실험은 뜻이 없는 단어를 만들어서 받아쓰기 실험을 했어요.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한 후 받아쓰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야기한 후 받아쓰기 결과를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 음성강도 실험은 마스크를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의 데시벨의 차이를 측정했어요.

시온: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받아쓰기를 하는 발음실험에서 처음에는 받아쓰기할 내용을 비문학 지문에서 찾아서 쓰게 했는데 그게 결국은 지문을 잘 기억하는가와 연관이 되면서 기억력 테스트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기억력과 관련되면 안되겠다 싶어서 파찰음, 의미 없는 단어, 모음에 집중한 단어를 10개 만들었어요. 브, 베, 이런 단어들이었어요.

가원: 저희가 얻은 실험 결과는 표정 실험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부가 결과에 차이를 주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가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발음과 음성 강도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서인: 실험에는 10학년 친구들이 참여해 주었어요. 10명 밖에 섭외를 못해 아쉬웠어요. 연구의 아쉬운 점으로 저희가 발표할 때도 이 부분을 언급했었는데 그 부분을 그래도 심사위원들께서 높이 사셨던 것 같아요.

예선에서 본선까지, 반전의 드라마

가원 : 예선에서 줌으로 논문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사실 겨우겨우 본선에 올랐다고 들었어요^^. 발표준비가 부족해 사실 황설수설했던 것 같고, 객관적인 수치가 명확한 다른 참가팀들에

비해 약간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주제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전달을 잘못 드렸어요.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심사위원 교수님이 그걸 오히려 칭찬해주셨어요. 처음부터 결과를 정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결과가 궁금해서 실험을 하나하나 만들어갔던 건데 그 과정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 시행착오를 칭찬받아 기분이 좋았다는 시온이

지수 : 그래서 본선 때는 발표 구성을 보다 더 촘촘하게 했어요.

서인 : 어디를 강조해야 우리 논문이 조금 더 돋보일까 생각했어요. 이걸 강조하자, 이걸 보완해야 할 점으로 돌리자.. 선생님이 큰 도움을 주셨어요. 거기에 맞춰서 발표 대본을 다시 썼어요.

가원 : 본선에 나가기 전에 다 같이 줌으로 모여 발표를 영상으로 녹화하고 그것을 선생님께 보내 선생님의 코멘트를 받아 다시 수정했어요. 선생님이 정말 많이 봐주셨어요.

시온 : 저희 팀의 주제가 다른 팀과 차별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논문들이 객관적인 수치에 기반해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를 보여주었다면 저희는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 실험의 사회적 의미를 조금 더 담아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실험을 하고 나니 마스크로 입모양과 표정을 볼 수 없게 된 청각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더 공감하게 되었고 이 어려움을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하는 고민을 담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높이 봐 주셨던 것 같아요.

지수 : 다른 팀들의 탐구가 모두 훌륭했지만 저희 주제가 실생활에 맞닿은 부분이고 우리가 직접 문제를 체감해서 주제를 잡은 것이기에 진정성이 더 느껴지지 않았을까 해요.

시온 :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심사위원 교수님이 그걸 오히려 칭찬해 주셨어요. 처음부터 결과를 정하고 시

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결과가 궁금해서 실험을 하나하나 만들어갔던 건데 그 과정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함께 소논문대회에 참여했던 다른 팀 논문 중 기억에 남는 팀이 있다면요?

시온 : 꼭 우리 학교라서가 아니라 저는 9학년 친구들의 논문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는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논문을 가지고 했던 건데, 9학년 후배들은 그런 것도 없이 정말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해서 대회에 참여했더라구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지수 : 저도 다 인상적이었지만 9학년 후배들 논문이랑, 또 하나는 물리와 수

학의 연계성을 탐구한 다른 학교 참가자가 있었는데 본인이 평소 궁금했던 일상 속 주제를 가지고 탐구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상금이 궁금해요. ㅎㅎㅎ

우선 회식을 한번 하고요^^. 저희가 마지막에 논문의 결론 제의 부분에서 마스크 착용이 얼굴 표정을 인식하는데

*편집자주: 그 후 학생들이 상금 일부를 청각장애인 지원단체인 사랑의달팽이(<https://www.soree119.com/>)에 기부했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마지막 한 마디는 모두 서로에 대한 고마움

지수 : 이 친구들과 해서 너무 좋았어요. 사랑샘도요.



서인: 동생들도 꼭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많이 성장한 거 같아요.

시온 : 논문 쓰는거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고 완성했다는 것이 뿌듯했어요. 완성을 한 것으로 이미 이긴 거였어요. 친구들에게 고마워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이거나 의료기관에서 투명 마스크 활용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상금 액수 중에 일부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곳에 기부를 하려고 기부처를 알아보고 있어요.

가원 : 저는 예체능 전공이라 사회도 과학도 어려운데 이 친구들 아니었으면 수업 시간의 논문도 열심히 못했을 것 같아요. 친구들 덕분에 열정적으로 할 수 있어서 친구들에게 고마워요.



학생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3천 개의 뉴스 댓글을 분석해 혐오 표현의 변화를 살펴본 9학년(현재 10학년) 김예준, 이예린 학생

참가자: 김예준, 고윤우, 이예린 (9학년) *고윤우 학생은 사정상 인터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논문: 뉴스댓글 분석을 통한 혐오표현 변화의 실증적 연구 (논문 보러가기)
지도교사: 정영범 선생님
수상: 소논문발표대회 CTS기독교TV 회장상

만만치 않았을 이 주제를 선정하기까지

예준 : 친구들과 모여서 우리가 관심 있는 주제가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당시에 ‘혐오’ 주제가 뉴스에 많이 보이던 때였어요. 올림픽 메달리스트 안산 선수 관련한 논쟁도 있었어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혐오 표현을 다뤄보는 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린 : 우리 사회의 혐오표현이 변화했을까, 변화했다면 어떻게 변화했을까 보고 싶었어요. 남녀 차별에 대한 사건을 정해, 그 사건 뉴스에 달린 댓글을 조사했어요. 연도별, 시기별로 나눠 혐오 표현을 비교해 봤는데요, 2015년 소라넷 사건과 2020년 N번방 사건을

다른 뉴스 댓글(편집자주: 약 3,300여개)의 혐오표현을 분석했어요.

예준 : 혐오표현 분석 결과 양적으로는 2020년 기사 댓글에 혐오표현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질적



으로는 2015년 혐오표현이 더 과격하고 투사적이고 온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어요. 저희 분석 결과로는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혐오 표현은 증가했지만 합리적이고 온순한 형태, 곧 긍정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포털의 댓글 정화 프로그램(네이버 댓글AI인 클린봇)에 의해 걸러진 댓글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정적 내용을 계속 보았을 때 심적인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예린 : 처음에는 충격 먹기도 했는데 무엇보다 저희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다 보니 큰 데미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준 : 저에게 충격이었던 점은 댓글에 나타난 혐오 표현이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접하는 단어, 자연스러운 단어였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게다가 혐오표현으로 분류하지 않은 옹호댓글들이 있는데 해당 사건, 범죄를 옹호하는 댓글인 거죠. 그 댓글은 사실 윤리적으로 맞지 않은 건데 어떻게 그런 사건을 옹호할 수 있을까, 모두가 같은 윤리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린 : 댓글의 혐오대상이 특정 성별만을 향해 있지 않았어요. 남성 비하, 여성 비하 등 남혐, 여혐으로 엄청 나뉘어져 있었어요. 특정 사람의 문제로 인해 그 사람이 포함된 성별 전체를 통틀어 비하하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안되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 참 중요했던 이 순간

예준 : 마감을 2주 앞두고 저희의 모든 댓글 분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아니면 잘못되대로 그냥 하자고 결정해야 했는데 그때가 정말 가장 기억에 남아요.

댓글 3천여 개의 분석을 거의 끝냈을 때였는데 혐오표현에



대한 우리의 분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분류 기준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아 셋이 다 다르게 분류를 한 거죠.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포기했다면 상을 떠나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요. 그때 결국 다시 해 보자고 했고 그때부터 2주 동안 거의 엄청난 시간을 쏟았던 것 같아요. 그 댓글을 모두 다 다시 봤어요. 아찔했어요.

한 장면, 그리고 한 마디

예린 : 저희가 다 같이 모일 시간이 없어 줌을 켜 놓고 했거든요. 집에서 밥을 먹다가도 전화 와서 줌에 들어오라고 하면 컴퓨터 키고 또 하고... 소논문 쓰면서 가장 떠오르는 장면은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던 장면이 가장 많이 떠올라요.

예준 : 팀플레이가 어떤 것인지 많이 배우고 깨달았어요. 저는 제가 칼자루

를 쥐고 싶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요. 끝까지 못했던 말인데... 많이 지적했고 굉장히 많이 따지듯이 물었고 그런게 있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칼자루를 쥐고 싶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요. 끝까지 못했던 말인데... 많이 지적했고 굉장히 많이 따지듯이 물었고 그런게 있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 예준이가 꼭 하고 싶은 한 마디

학생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지구 온난화 환경 문제로 논문을 쓴 8학년(현재 9학년) 김채원 학생

참가자: 김채원 (8학년)

논문: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문제와 해결방안 (논문 보러가기)

지도교사: 최아름 선생님

수상: 소논문발표대회 장려상

주제를 잡기까지

작년인가 재작년에 비가 아주 많이 왔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비가 많이 오는 문제가 환경 문제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뭔가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던 때였거든요. 마침 소논문대회가 있다고 담임선생님께 이야기를 들어 도전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뿌듯했던 순간이 있다면요?

준비할 때 맷음(편집자주: 샘플의 시험) 기간이 겹쳐서 정말 바쁘고 여유가 없었어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논

문을 찾아서 짬짬히 준비했는데 정말 바빴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거리낌이 좀 있었어요. 논문을 쓰면서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상을 받으니까 내가 잘 쓴 거구나 생각이 들어 뿌듯했어요.



논문을 쓰며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을 꼽는다면요.

저는 논문에 제가 썼던 한 장면이 떠올라요. 태평양 어딘가에 쓰레기 섬이 있대요. 멀리서 보면 새로운 대륙, 육지 같이 보이는 섬.. 그런데 막상 올라가 보면 온통 쓰레기예요. 플라스틱, 비닐, 다 쌓여 있대요.

해류의 흐름 때문에 다 거기서 흘러가서 모이고 계속 쌓인다고 해요. 저는 그게 제일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저는 분리수거 잘 하려고 해요. 그전에는 조금씩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섞어서 버리지 않아요. 비닐은 비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이렇게 잘 분리해서 버리려고 해요.

“ 논문에 제가 썼던 한 장면이 떠올라요. 태평양 어딘가에 쓰레기 섬이 있대요. 멀리서 보면 새로운 대륙, 육지 같이 보이는 섬.. 그런데 막상 올라가 보면 온통 쓰레기예요. 플라스틱, 비닐, 다 쌓여 있대요. 해류의 흐름 때문에 다 거기서 흘러가서 모이고 계속 쌓인다고 해요. 저는 그게 제일 많이 기억에 남아요.

— 채원이의 한 장면

동하의 감사

[인터뷰] 제 16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배드민턴 복식 금메달
은혜샘물초등학교 6학년 김동하 학생



은혜샘물초등학교 6학년 김동하 학생이 2022년 5월 열린 제16회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 배드민턴 대회에 출전해 초등 부문 남자 복식 금메달, 남자 단식 동메달을 수상했습니다.

2022년 5월17일부터 4일간 경상북도 곳곳에서 진행된 제 16회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는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재학중인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18개 종목, 1,400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전국대회입니다.

도 선발전을 거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한 김동하 학생은 이제 배드민턴을 본격적으로 연습한지 8개월 정도 되었답니다. 배운지 일년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하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노력과 연습을 많이 한 결과가 나온 것 같이라며 수줍게 웃네요.

메달을 땀을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의외의 인물이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엄마 아빠 말고 이 분을 떠올려서 부모님이 많이 섭섭해하셨다는데요, 금메달의 감격이 생생했던 지난 5월 말, 학교에서 동하 학생을 만나 보았습니다.



배드민턴 대회는 어떻게 나가게 되었나요?

제가 배드민턴을 배우고 있어요. 매주 한 번씩 2시간씩 배운지 8개월 정도 되었는데 배드민턴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한번 대회에 참가해보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연습하고 준비했나요?

5번에 걸쳐 남양주에 있는 연습관에 가서 단체로 연습을 했고요. 가족들과 배드민턴장에서 연습도 했어요. 엄마는 배드민턴을 못 해서 같이 연습을 못 했고, 일단 아빠랑 주말마다 연습했고 평일에도 아빠가 저녁에 일찍 퇴근해서 30분 정도 연습을 해 주셨어요.

메달을 땀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났나요?

소하영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금메달 딴 소식을 소하영 선생님께 제일 먼저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소하영 선생님은 5학년 담임 선생님인데 작년에 저를 도와주시고 저의 고민을 많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한 의미로 상을 탔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이랑 잘 못 지내고 있을 때 선생님이 방법도 알려주시고 제가 말할

때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어떤 거였어요?) 제가 작년에 친구들과 같이 놀려고 썼던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은 선생님은 안 좋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이, 예를 들어 축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축구하는데 가서 애들아 나도 축구하는 것 같이 끼어주라, 하라고 알려주셨는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 전에는 저는 “나랑 같이 놀 사람...!” 이렇게 외쳤는데 선생님은 그 방법은 안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저는 “선생님 말을 안 듣고 싫어요, 제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선생님 말을 안 들었던 느낌이 들어 많이 죄송했어요.

말도 참 잘했던 동하의 인터뷰



배드민턴 전국대회를 준비하며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이 있다면요?

선발전도 같이 하고 함께 연습했던 형, 누나들이 있는데 함께 신나게 뛰어 놀아 그게 즐거웠고 오래도록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저는 대회를 통해 사랑을 많이 느꼈어요. 형, 누나들이 저를 많이 챙겨주고 많이 칭찬해주고 지금도 문자 보

내면 답장도 해 주어 고마워요. 형, 누나들과 헤어질 때는 슬펐지만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배드민턴 계속 연습할 건가요?

대회에 나가 상을 타고 메달을 따니 기분이 좋았어요. 이번 대회에서는 복식은 금메달, 단식은 동메달 땀는데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단식도 금메달을 따는게 목표예요.

매일 배드민턴장에 가서 부족한 점을 아빠의 도움을 받아 연습할 거예요. 기술을 많이 연습하려고요. 제가 기술 때문에 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나쁜... 건 아닌데, 조절을 잘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경기에서 지면 울었는데 지금은 마음을 잘 조절해서 밖에서 바람을 쐬고 오니깐 마음이 진정되고 까짓꺼 내년에 잘 하면 되지 뭐, 개가 잘 한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습을 많이 도와주신 아빠에게 한 마디

제가 많이 도와주신 것 가족들인데 (금메달 땀을 때) 가족이 생각난다고 하지 않고 소하영 선생님이 생각난다고 해서 좀 미안해요. 앞으로는 더 열심히 배울게요. 아빠,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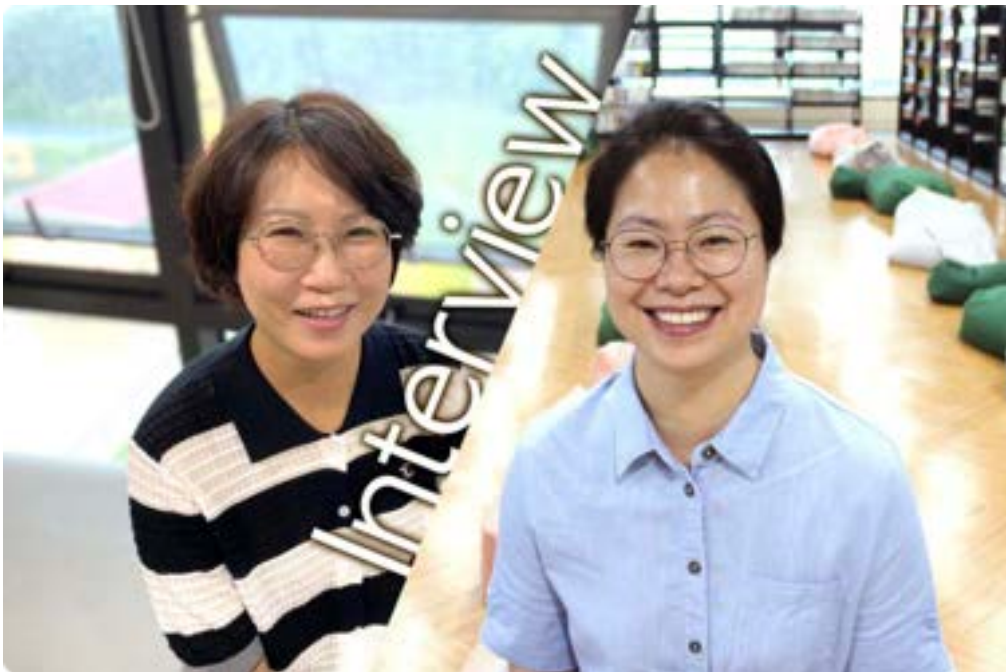
(또 소하영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이네요) 소하영 선생님, 작년에 저를 잘 가르쳐 주시고 제 고민도 들어주시고 다른 친구들보다 유독 저를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에 선생님께 무례하게 행동한 것은 진짜 반성을.. 몇 달이 지났는데도 죄송한 마음이 커서 반성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제가 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따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복식 금메달을 목에 걸고 (왼쪽이 동하)

이 일을 계속하게 했던 그 한 명의 학생

[인터뷰] 샘물 학부모 학습지원교사를 만나



샘물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섬기는 샘물의 학습지원교사.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샘물 자녀들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어 1-2명의 학생들을 맡아 공부를 지원하고 있어요.

올해로 4년째 학습지원교사로 섬기고 있는 두 분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님들은 공부는 원래 어려운 것이라며 그 자리에 나온 학생들의 용기와 가능성,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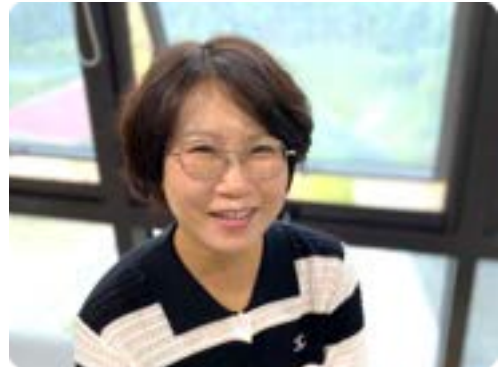
문적인 기술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같이 걱정해주고 연습하고 걸어주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보다 많은 부모님들이 학습지원교사로 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10명의 학부모님들이 샘물중고등학교 영어, 수학, 국어 학습지원교사로 섬겨주시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비해 교사가 많이 부족해 더 많은 학부모 교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분 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해 4년 넘게 이 일을 지속하고 계신 걸까요?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신재은 님

샘물중고등학교 10기(11학년) 학부모
샘물중고등학교 학습지원교사(영어) 4
년차



기독교교육의 시작

저희 아이는 8학년때 편입했어요. 일반 중학교를 1년 다니면서 공교육을 하려면 거기에 맞게 사교육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아이는 학습 면에서 다른 친구들과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어떤 면은 잘 하지만 어떤 면은 속도가 느리다는 특징을 알게 되면서 엄마와 아이가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 사교육에 매달려서 10대 시절을 보내야 하나, 이 아이에게 중요한게 뭔가, 아이의 10대 시절을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지요. 감사하게도 제가 속한 목장에 샘물을 보내는 가정이 있어 자연스럽게 학교에 대해 알게 되고 학교를 옮기게 되었어요. 사실 중학교 2학년에, 특히 남자아이가 학교를 옮기는 것은 힘든 일인데 너무 만족하고 아이도 정말 좋아합니다.

학습지원교사로의 섬김

아이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시작했어요. 학교의 사역을 돕고 싶었고 이 공동체와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영어강사를 오래 했었기도 했고 직장에서 근무시간을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규칙적으로 시간 내는 것은 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한 번 시작하니까 그만두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올해도 직장 일이 바빠서 갈등이 좀 있었는데 아이들과의 사귄감과 기쁨에 그만두기가 아쉽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한 명의 학생

8학년 남학생이었어요. 마음을 열기 참 어려운 시기죠. 이 친구뿐 아니라 학습지원교사로 학생들을 만나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다 위축감이 있고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로 와요.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 내가 많이 뒤떨어지나 이런 생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매칭할 때 조금만 도와주면 이 친구는 굉장히 발전할 것이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연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만나보면 정말 요만큼만 도와주면 충분히 도움닫기를 해서 자기주도학습을 잘할 수 있는 바

탕이 분명히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8학년 그 친구도 그랬었어요.

처음에 마음을 안 열고 서로 대화하기가 어려웠지만 그 친구가 갖고 있는 당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네가 이리러해서 영어가 어렵지? 그래 이 부분은 진짜 어려운 부분이야, 하면서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같이 해주었어

“ 학습지원교사로 학생들을 만나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다 위축감이 있고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로 와요.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 내가 많이 뒤떨어지나 이런 생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매칭할 때 조금만 도와주면 이 친구는 굉장히 발전할 것이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연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만나보면 정말 요만큼만 도와주면 충분히 도움닫기를 해서 자기주도학습을 잘할 수 있는 바탕이 분명히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요. 정말 감사했던 것은 일주일에 한번 만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시간을 내주지 못했지만 그 학생이 먼저 요청을 하더라구요. 선생님 저 이거 어려운데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저희 집이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왜 안 되겠니, 선생님이 당장 갈게, 가서 설명해주고..... 시험이나 수행평가 때도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이 되더라구요.

그때가 그 학생의 어머니가 아이의 학습 때문에 많이 기도를 하시던 시기였대요. 기도를 하다가 딱 제 전화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구

나, 기도 속에서 하나님 계획 안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서로를 돕게 되는구나, 이게 샘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제도구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고 그 어머니가 저희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좋은 동역자로 함께하고 있어요.

“학습지원교사로도 많이 섬겨주시고, 또 학습지원도 많이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1시간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내기 어려운 시간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학습지원교사라고 하면 굉장히 전문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아주 기초적이고 누구나 하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공부는 원래 어려운 거야, 네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어려운 거야, 너무 겁내지 마, 지금 이해 못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천천히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네가 이만큼 도달해 있을 거라고 말해 줘요. 그 아이가 용기를 얻어 내가 이 산을 넘어가야 하는구나, 이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조금 아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아요. 성적을 올려주는 것은 선생님들이 하시는데 거구 어려움에 같이 공감해주는 역할이 학부모 지원교사의 가장 큰 역할인 것 같아요.

수 있는 일이에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읽을 줄만 아셔도 같이 옆에서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아이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실제로 선생님들이 요청하시는 것도 그런 거예요. 뭔가 많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니 망설이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전문적인 가르침은 선생님들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 옆에서 보조해드리는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먼저 시작한 선배 학습지원교사들이 정보도 나누고 도울 수도 있고요. 절대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함께만 해 주셔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굉장히 많이 나누는데 학교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시라 말씀 드려요. 우리가 사교육 안 하겠다 서로 약속을 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사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공부해도 될까 마음의 불안함을

다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충분히 학교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 선생님들께 도움을 청하시고 학습지원교사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생을 두 명씩 같이 해도 되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시면 좋겠어요.

잊을 수 없는 첫 만남 그 표정

“ 학습지원교사를 하던 순간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아이들의 첫 만남 표정이 떠올라요. 근심하는 표정, 그 표정이 정말 너무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그 걱정이 크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정말 도와주고 싶다, 아니 사실은 나도 그냥 같이 걱정해 주고 싶다, 애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왜 어려운지 조금 들어주고 싶다,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학습지원교사를 하던 순간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아이들의 첫 만남 표정이 떠올라요. 근심하는 표정, 그 표정이 정말 너무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그 걱정이 크

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정말 도와주고 싶다, 아니 사실은 나도 그냥 같이 걱정해 주고 싶다, 애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왜 어려운지 조금 들어주고 싶다,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공부는 원래 어려운 거야, 네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어려운 거야, 너무 겁내지 마, 지금 이해 못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천천히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네가 이만큼 도달해 있을 거라고 말해줘요. 그 아이가 용기를 얻어 내가 이 산을 넘어가야 하는구나, 이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조금 아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아요. 성적을 올려주는 것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구 어려움에 같이 공감해주는 역할이 학부모 지원교사의 가장 큰 역할인 것 같아요.

*

*

김정현 님



샘물중고등학교 5기, 9기(12학년),
은혜샘물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샘물중고등학교 학습지원교사(영어)
4년차

기독교교육의 시작

첫째(2013년 샘물중고등학교 입학, 5기 졸업생)가 중학교를 갈 때쯤 공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 특별히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많았어요. 대안을 찾던 중에 샘물중학교를 알게 되었고 학교를 알아보며 입학 결심하게 되었어요.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생들의 표정을 집중해서 보았는데 편안하고 즐거워 보이고 표정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학습지원교사로의 섬김

저희 큰 애가 문자에 유난히 약한 난독증 학습장애를 겪다 보니 큰 애를 통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당시에는 학습장애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어 효과적으로 도움 사람을 찾기 어려웠기에 제

가 전문가도 찾아가 물어보고 공부도 하며 큰 애와 그 시기를 지나간 것 같아요. 아이가 성장하며 학습적인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한 이후에 돌아보니 저희 애랑 비슷한 아이들이 간간히 보이고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 덤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학습지원교사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잊지 못할 한 장면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어요. 검정고시를 봐야 되잖아요. 검정고시 보기 어렵겠다 싶었던, 학생도 많이 힘들던 그런 상황에서 저를 만나게 됐었어요. 검정고시를 앞두고 긴 시간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3-4개월을 부지런히 했죠. 검정고시 보고 나서 아이가 눈이 동그랗게 해서 왔어요. 100점 맞았다고. 자기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그

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지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기억에 남는데 변화가 컸던 그 친구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포기했던 아이들이 “하면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할 때

가르쳤던 학생들을 학교에서 만날 때, 반갑게 다가와줄 때 되게 좋아요. 아이들을 처음 만날 때는 보통 절망적인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도 포기한 상황, 안 된다고 생각하고 수년간을 살아온 학생들... 그런데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때, “하니까 되네?”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할 때, 아이들이 엄청 예쁘죠.

학습지원교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

은 다수로 수업할 때는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어요. 개별적으로 맞춰서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전문적인, 어려운 수업은 아니에요. 같이 있어주고 기초적인 것들 같이 연습해 주고 같이 걸어주는, 기술보다는 인내력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좋은 마음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먼저 겪은 선배로서 전하고 싶은 격려

저는 굉장히 막막했고 불안했어요. 내 탓인 것 같은 미안함도 있고 정말 복잡한 감정이 막 드는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과제가 있잖아요. 내 책임도, 아이의 잘못도 아닌, 그냥 자기만의 삶의 과제들 중 하나라고 받아들이니 아이도 저도 좀 쉬워진 것 같아요.

저희 아이 경우에는 학습을 좋아하는데 잘 안 되니 너무 절망해서 그런 게 참 힘들었거든요. 무슨 말로도 위로가 안 되죠. 그래도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할 수 있는 것까

“가르쳤던 학생들을 학교에서 만날 때, 반갑게 다가와줄 때 되게 좋아요. 아이들을 처음 만날 때는 보통 절망적인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도 포기한 상황, 안 된다고 생각하고 수년간을 살아온 학생들... 그런데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때, “하니까 되네?”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할 때, 아이들이 엄청 예쁘죠.

지 해 보자,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자 아이랑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잘하고 좋아하는 것은 실컷 하게 해 주고 못하는 것은 꾸준히 조금씩, 많이 하면 너무 힘들니까 조금씩 꾸준히 했어요. 이렇게 하니 속도는 느리지만 조금씩 되는 경험들이 내면의 힘이 되더라구요.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잘하지 않아도 돼”가 되어야 하더라구요. 부모로서도 어려운 관문이었어요. 진심으로 잘하지는 않아도 돼, 그냥 너 할 만큼 하면 돼, 그게 아이한테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 줘야 되더라구요.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도 성적표를 확인하

지 않았어요. 하면은 분명히 생각나고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더 잘할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확인하지 않았었어요. 네가 한 거 엄마가 알아, 그거면 충분해... 그래도 본인이 자기 잘했을 땐 (성적표를) 보라고 하죠. 보면 막 박수 쳐주고...

저도 진짜 많이 변했어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저도 몰랐던 두려움과 불안함, 겉모습을 지키기 위한 가면들, 그런 것들을 많이 마주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과정을 겪으면서 더

“저는 굉장히 막막했고 불안했어요. 내 탓인 것 같은 미안함도 있고 정말 복잡한 감정이 막 드는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과제가 있잖아요. 내 책임도, 아이의 잘못도 아닌, 그냥 자기만의 삶의 과제들 중 하나라고 받아들이니 아이도 저도 좀 쉬워진 것 같아요.

저희 아이 경우에는 학습을 좋아하는데 잘 안 되니 너무 절망해서 그런 게 참 힘들었거든요. 무슨 말로도 위로가 안 되죠. 그래도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할 수 있는 것까지 해 보자,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자 아이랑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잘하고 좋아하는 것은 실컷 하게 해 주고 못하는 것은 꾸준히 조금씩, 많이 하면 너무 힘들니까 조금씩 꾸준히 했어요. 이렇게 하니 속도는 느리지만 조금씩 되는 경험들이 내면의 힘이 되더라구요.

공부하고 싶고 돕고 싶고 삶이 그래서 엄청 풍성해졌어요.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 부모님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번에 대학원 교육심리학과에 응시했어요. 발표가 다음 주 안에 나오는데, 공부를 더 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잘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편집자 주) 한 달 뒤, 대학원에 합격해 가을학기부터 공부하게 되셨다고 좋은 소식을 전해오셨습니다. 이제 더 바빠지셨으니 학습지원교사 계속하실 수 있으실까요 질문에, 이 일을 잘 하기 위해 시작한 공부라 학습지원교사 계속 해야죠, 하십니다. 결심하게 된 그 마음이 감사하고 앞으로의 여정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진짜 많이 변했어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저도 몰랐던 두려움과 불안함, 겉모습을 지키기 위한 가면들, 그런 것들을 많이 마주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과정을 겪으면서 더 공부하고 싶고 돕고 싶고 삶이 그래서 엄청 풍성해졌어요.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 부모님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번에 대학원 교육심리학과에 응시했어요. 발표가 다음 주 안에 나오는데, 공부를 더 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잘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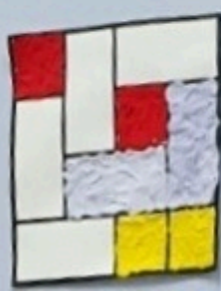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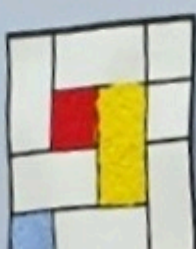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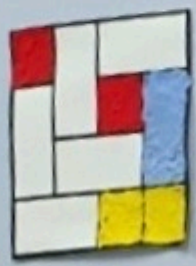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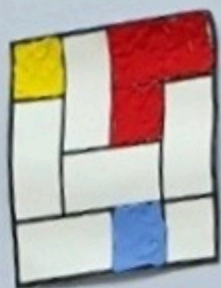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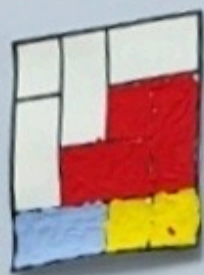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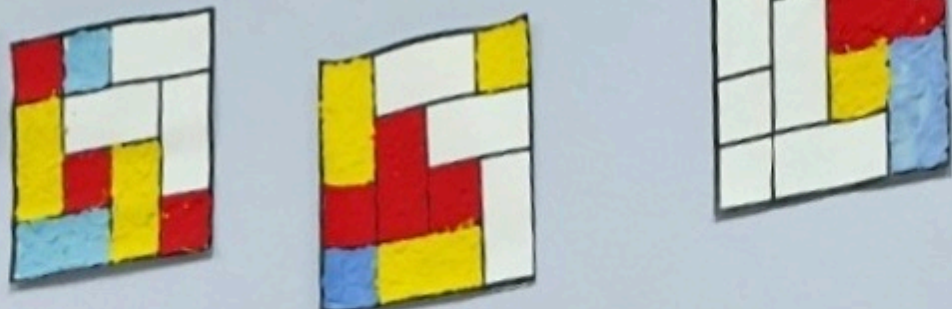
영상으로 보는 이 일을 계속하게 했던 한 명의 학생



샘물배움공동체 교실 속 이야기

유치원 갤러리

노랑의 구성



은혜샘물유치원 어린이들의 그림



매주 한 편씩, 은혜샘물초등학교 6학년의 독서록

정의로운 죽음

[청소년을 위한 광주5.18]을 읽고

은혜샘물초등학교 6학년 송해민

5.18 민주화 운동, 어디선가 한 번 짬은 들어봤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씩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잔혹했다는 것을... 하지만 이 사건은 잔혹한 것이 아니었다. 그 이상이었다. 이 사건은 잔인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유신헌법을 만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하에게 총을 맞아 숨지고 난 뒤, 그를 따르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정변을 일으켰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사정변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광주에서 시위를 벌여서 계엄군이 폭력적으로 진압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 사건이다.

난 전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들은 개울가에서 놀던 아이들을 죽이고, 신혼여행을 가는 신혼부부를 죽이는 등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는 정말 참혹한 짓을 했다. 여기까지 봤을 땐 그들, 즉 계엄군이 나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그들은 엄연한 피해자이다. 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계엄군이 되었지만 국민들을 지키기보단 진압해야했다. 또 그들은 광주사람들이 모두 빨갱이라고 세뇌 당했으며, 나중엔 정신적 피해로 죽는 사람도 있었다.

난 이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에 감사했고, 앞으로 역사를 볼 땐 한쪽으로 치우쳐 보지 않고 여러 시선으로 보기로 다짐했다. 그래야 좋지 않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테니까

담임 선생님의 피드백: 책에 대한 전체적인 소감으로 도입을 연 부분이 좋았음. 줄거리와 줄거리 사이에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전개한 것이 좋음. 줄거리에 쓴 역사의 관점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로 연결하며 자신의 다짐을 쓴 부분도 아주 좋음. 줄거리 사이사이에 자신의 생각에 더하여 느낌을 조금 더 써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음.

편애도 학대다.

야곱의 차별이 아들들에게 미친 영향



요셉, 야곱이 사랑한 아들

창세기 37장

요셉은 이스라엘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은 요셉을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리고 요셉에게만 화려한 옷도 지어 주었다.

요셉은 두 개의 꿈을 꾸었고 형들에게 그 꿈의 내용을 말하자 형에게 미움을 당하여 구덩이 속에 버림을 당한다. 그렇게 요셉은 미디안 사람 상고에게 팔려 애굽으로 간다. 그리고 형들은 옷에 피를 적서 짐승에게 잡혀 죽은 것처럼 아버지를 속인다. 그렇게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보디발에게 팔아 넘겨지게 된다.

1

첫번째 꿈

요셉이 묶은 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싸고 절을 함

2

두번째 꿈

해, 달, 별 열한 개가 요셉에게 절을 함

3

결과

그의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더욱 미워했다.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요셉]

아버지께 화려한 옷을 받음.

형들의 허물을 일러바침.

자신이 꾸 2개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함.



[요셉의 형들]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함.

일한 마디 다정하게 하지 않음.

요셉의 화려한 옷을 벗기고 구덩이 안으로 먼저 넣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은 스무냥에 함.



재밌는 이야기꾸러미 들으러 오세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과 이삭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고?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께로부터 모리아 땅에 가서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아들을 죽이라는 말에 불평하지 않고 바로 실천하려고 산으로 갔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위에 올려 놓았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개를 드니 숫양 한마리가 있었고 그것을 제물로 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너가 외아들도 아끼지 않았으니 너의 자손이 모래처럼 늘어나겠다고 맹세했다.

오늘의 퀴즈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어느 산으로 갔을까요?

- 모리아산

이삭 대신 어느 것이 제물로 바쳐졌을까요?

- 숫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 너의 자손이 모래처럼 늘어나겠다고 맹세해주셨다.



아브라함
175세 사망
믿음의 조상
100살에 이삭 낳음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리브가와 결혼



숫양
이삭 대신 제물로 바쳐진 양

2022-07-15

방학예배 감사나눔: 올해 편입한 10학년 박재운

밝았습니다. 저는 올 해 샘물고등학교에 편입한 10학년 1반 박재운입니다. 샘물고등학교에서의 반년을 돌아보면 감사는 제게 빼놓을수 없는 키워드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제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주님 없이는 제 삶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샘물고등학교에 오기 전 홈스쿨링을 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홈스쿨링이면 좋았겠지만, 계획없이 제 자신을 방치한 탓에 제 몸과 마음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잘 되면 내덕 안 되면 하나님 탓을 하는, 비뚤어진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 안에서 살기는 커녕 하루하루를 집안에서 의미없이 보냈고, 시간이 갈수록 제 몸과 마음은 점점 더 망가져갔습니다.

어느새 제게는 불안장애와 강박장애가 생겼습니다. 제 오만함과 죄들은 점점 더 저를 움아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하시려고, 제 성향에 맞는 상담선생님과 병원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상담을 받으며 제 몸과 마음의 상태는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은 후 곧장 샘물고등학교의 선발캠프에 응시했고, 감사하게도 합격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샘물을 다니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 학교를 다니며 제겐 많은일이 있었습니다. 오랜기간 학교를 쉬 제게는 평범한 학교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포기는 제게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자퇴를 결심하여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하기도 하였고, 부모님과 언쟁하기도 하였으며, 담임 선생님과 길고 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포기를 결심할 때면 주님께서 매번 저를 다시 샘물로 보내시고 이끄셨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학교에 오는 것이 귀찮고, 쉬고 싶고, 학교도 공부도 다 그만 두고 싶었습니다. 여러 이유를 들어 포기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은 저를 샘물로 다시 돌려보내시기 위해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담임선생님, 교회 전도사님, 상담선생님들을 통해 샘물에서의 새로운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샘물을 그만두자는 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게 해주셨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과의 만남은 기적같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이건 단순히 기가막힌 우연일 뿐이라고, 내 운이 너무나도 좋아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정말로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갑니다.

시편 139 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해변의 모래알보다도 많다고 노래합니다. 저는 정말 이것을 뼈저리게 실감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정말 샘물에 온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즐겁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못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과거에 저는 하나님이 계시긴 한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영향을 미치시나? 의심하고 제멋대로 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선 우리의 삶에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며, 우리가 갈 길의 최선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최선의 길로 이끄신 것이었습니다.

샘물에 온 뒤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번 여름 방학 기간동안 저는, 매일을 주님 안에서 경영하며, 하루하루를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방학 동안 우리 모두, 최선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며 생활하는 샘물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물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선정한 알리고 싶은 생물 세 가지

선생님의 말

2023학년도 신입입생 모집을 앞두고,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 광고를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할 말이 많아서 이렇게 기사를 써 왔네요. 생물중고등학교 9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꼽은 알리고 싶은 생물의 모습 세 가지는 바로, 코로나19로 3년만에 재개된 생물중고등학교 국토순례, 맛있는 학교 급식, 그리고 생물중고등학교만의 특별한 교과융합 수업인 생물수업(7-10학년입니다. 학생기자들의 눈으로 바라본 생물의 베스트를 만나보세요.

생물배움공동체온해생물유치원, 은혜생물초등학교, 생물중고등학교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기독교학교입니다. 이 곳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약 570여 명의 학생이 섬기는 예수제자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 2023학년도 신입입생 모집 입학설명회 _ 2022년 9월 3일(토) www.smca.or.kr

내가 생물에 온 이유 : 국토순례

우리가 일년 중 가장 큰 배움을 얻는 일주일



2022년 4월 25일부터 생물중고등학교에서는 4일간의 국토순례가 진행됐다. 국토순례는 생물의 대표문화로 12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이 80km 가량을 함께 걷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성장해 나가며 배려를 배우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혼자 걸으면 빠르게 갈 수 있겠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같이 걸으면 조금은 더딜지라도 멀리, 그리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국토순례를 마치고 돌아온 생물인물에게 교장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코로나19로 3년만에 진행된 이번 국토순례는 예년과 다르게 등하교로 용인, 수원, 안성 등 학교 주변 코스를 순례했다. 올해 국토순례에서는 각 코스마다 완주한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배지를 나눠줬으며 마지막 날에는 힘을 학생들을 위해 자녀으로 합스타와 로제파스타가 나왔다.



생물중고등학교 9학년 배강희 기자

모든 생물인의 자랑, 급식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생물배움공동체 모든 학생들이 학교의 자랑으로 꼽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급식이다. 장상이 듬뿍 들어간 식단은 이후 말할 것 없이 훌륭하다.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고등학생들은 저녁식사로 하게 되는데 식식 메뉴는 점심보다 더 맛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취재 급식 메뉴를 물어보았다. 생물인들의 취재 급식 메뉴는 크림파스타, 오일파스타를 비롯한 파스타와 크림떡볶이, 김치볶음밥, 후라이드치킨, 마늘빵, 닭국, 돈가스, 쌀국수, 버미밥, 수육, 리조토 등 매우 다양했다.



생물중고등학교 9학년 빅가영 기자

생물중고등학교에서 시작한

생물만의 특별한 수업, 생물수업



생물중고등학교에는 다른 학교에는 없는 특별한 수업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생물수업이다. 생물수업은 각 과목의 경계를 없앤 교과 통합 수업이자 학생 스스로 만들어 가는 수업이다.

맛집 식음료에게 물을 주고 집초를 켜며 수학의 기쁨을 느끼는 노작 활동, 직접 보드게임판을 만드는 목공 활동,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STEAM활동까지 7학년(중학교 1학년) 생물수업은 자연과 나, 세상과 나의 관계를 알아가며 마음밭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8학년 생물수업은 '친구와 함께 떠나는 여행'이다. 나와 나,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보며 정체성을 알아가는 시간이다. 여러 예술 활동으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각자 연가-연출팀, 미디어팀, 미술팀, 음악팀에 지원하여 창작극을 만든다. 중학교 3학년인 9학년 생물수업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올해는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을 읽었는데 주인공이 아닌 프라이데이라는 인물의 입장으로 쓰인 책을 읽었다. 여러가지 시선으로 보는 이야기는 흥미로웠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수업이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가는 생물중고등학교만의 수공예품 같은 생물수업. 각 과목 선생님의 고민이 느껴져 선생님들에게 많은 감사를 느끼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생물중고등학교 9학년 하주호 기자



샘물인들이 빛나는 밤

244CM X 122CM

VAN GOGH REFERENCE IDEAS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작품을 레퍼런스로 작업한 26명 학생작가의 30조각 작품.

참여작가:

정한결 조혜준 최준수 황지우 장휘겸 장희주 전윤재 정바다 장주하 전진 정용휘 함서진 하유민 김주호 남서현 박성민 박지훈 노유진 박세영 엄하울 이길 박수진 박예찬 이승우 이예론 전윤서

수상소식

샘물중고등학교, 제8회 미래교육상 학교공간혁신 부문 최우수상 목정미래재단이 주최하는 초·중·고 교사 대상 수업 공모전 ‘제8회 미래교육상’에 샘물중고등학교(교사 유승민, 박나래)가 ‘공동창작활동을 통한 학교 광장 만들기(브릿지아트프로젝트)’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목정미래재단의 <찾아가는 시상식>이 3월31일(목) 오후 1시,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샘물중고등학교 안대욱홀에서 열렸습니다.

은혜샘물초등학교 6학년 김동하, 제 16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배드민턴 대회 초등 부문 남자 복식 금메달, 남자 단식 동메달 수상 은혜샘물초등학교 6학년 김동하 학생이 2022년 5월 열린 제 16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배드민턴 대회에 출전해 초등 부문 남자 복식 금메달, 남자 단식 동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샘물중고등학교 8학년 샘물수업 프로젝트 <가면이 벗겨진 세상>, 교보교육재단 주최 2022 인성교육 프로그램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공모 당선 교보교육재단이 청소년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2022 인성교육 프로그램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공모

에 2022년 6월, 샘물중고등학교 <8학년 샘물수업 프로젝트: 가면이 벗겨진 세상>이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샘물중고등학교 김경민(10학년), 김혜량(11학년), 이예린(10학년), 이주빈(11학년), 교보교육재단 창작노래공모전 최우수상 샘물중고등학교 10-11학년 김경민, 김혜량, 이예린, 이주빈 학생이 2022년 6월, 교보교육재단이 주최한 2022년 청소년 응원 프로젝트 제 2편 창작노래 공모전에서 ‘Don’t give up’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샘물중고등학교 심승현, 정시은, 전재린(이상 10학년), 교보교육재단 창작노래공모전 우수상 샘물중고등학교 10학년 심승현, 정시은, 전재린 학생이 2022년 6월, 교보교육재단이 주최한 2022년 청소년 응원 프로젝트 제 2편 창작노래 공모전에서 ‘할 건 너무 많지만’ 작품으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샘물중고등학교 9학년 임해인, 제588회 중앙음악신문 전국콩쿠르 피아노부문 특상 샘물중고등학교 9학년 임해인 학생이 2022년 6월, 중앙음악신문사

가 주최한 제 588회 중앙음악신문 전국콩쿠르에서 피아노부문 특상을 수상했습니다.

샘물중고등학교 7학년 고명한, 롱보드 대축제 일반부 남성 프리스타일 3위 샘물중고등학교 7학년 고명한 학생이 2022년 6월, 제 7회 롱보드 대축제에서 일반부 남성 프리스타일 3위를 수상했습니다.

샘물중고등학교 12학년 이지원, 제 17회 전국학생문예작품공모 운문부 최우수상 샘물중고등학교 12학년 이지원 학생이 2022년 7월, 다형 김현승 시인의 시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다형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제 17회 전국학생문예작품공모에서 운문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더불어 이지원 학생은 2022년 6월, (사)한국문인협회 안산지부가 개최한 제 17회 전국 상록수 백일정에서 운문 부분 참방으로 입상하였습니다.

*

*

*

섬기는 예수제자 샘물배움공동체
은혜샘물유치원 은혜샘물초등학교 샘물중고등학교

발행일 2022.09. **발행처** 샘물배움공동체 **발행인** 윤만선
1698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로 156 (상하동 506번지)
T. 031 714 7091 **F.** 031 8005 7093 **E.** public@smca.or.kr www.smca.or.kr